애틋한 사랑얘기 설렌다 설레~

김우빈·수지 주연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 내일 첫 방영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이야기.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6일 첫 방송하는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의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연출자의 명쾌한 답변이다.

한류스타 김우빈과 수지가 출연하고 100% 사전제작해 '제2의 태양의 후예'를 꿈꾸는 '함부로 애틋하게'는 과거 악연으로 헤어졌던 신준영(김우빈 분)과 노을(수지 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회하는 이야기다.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던 준영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연예인이 되고, 의리 넘치던 노을이 속물 중에 속물이 되게 만든 과거의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사랑은 과연 악연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 '함부로 애틋하게'의 극본은 '상두야 학교가자',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참 좋은 시절' 등을 통해 따뜻하고 뭉클한 사랑을 그려온 이경희 작가가 맡았다.

연출을 맡은 박현석 KBS PD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작가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사계를 그리고 싶다고 하셨고 그 주제의식이 작품에 올곧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박 PD는 이어 "사랑으로 정화되고 위안받는 드라마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빈과 수지 두 주연 배우는 "시놉시스만 보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짧은 시놉시스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것.

김우빈은 "시놉시스에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쓰여있었는데 그 장면이 가슴에 콕 박혔다"며 "특히 작가님과 감독님이 저희 배우들을 믿고 맡겨주셔서 더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다"며 스태프에 감사를 전했다.

연출을 맡은 박현석 PD와도 과거에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있다는 그는 "시놉시스에 20회 마지막 장면이 쓰여있었는데 그 장면이 가슴에 콕 박혔다"며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아,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00% 사전제작으로 이뤄진 촬영에 대해 김우빈은 "시간적 여유 덕분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다만 시청자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연기하지는 못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배우 신민아와 공개 열애 중인 그는 관련 질문을 받자 한참을 쑥스러운 듯 웃었다. 김우빈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며 "촬영을 할 때도, 드라마 티저가 나올 때도 응원을 많이 해줬다"면서 "드라마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민호 형(수지의 열애 상대인 이민호)은 저와도 친분이 있다. 저한테도 응원한다고 해줬다"며 훈훈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수지는 "현실과 타협해서 속물이 되는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매력적이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공감이 많이 갔다"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신준영(김우빈 분)에게 장난을 치며 웃다가 울음을 터트리는 연기를 선보인 그는 "제가 (웃다가 울음이 터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작가님과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본에 써주셨다"고 말했다.

수지는 "작가님이 배우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잡아서 써주시는 것 같다"며 "하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 아무리 한번 경험한 감정이라고 해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극 중 다큐멘터리 PD로 통바지에 운동화를 주로 신고 나오는 그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는데, 보다 보니 친절한 성격이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연기 변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수지는 준영에게 장난치는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 계속 NG를 내는 바람에 결국 PD의 눈총을 받기도 했고 후반부에는 너무 많이 울어서 '너 마음 가는 대로 하라'던 작가에게 그만 울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시청자분들이 '함부로 애틋하게'를 보시면서 너무도 예쁜 아이들에 웃음을 짓기도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다가 하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함부로 애틋하게'는 올해 초 큰 인기를 모은 '태양의 후예'에 이어 100% 사전 제작으로 세계적 인기를 노린다. 드라마피버와 유쿠 등을 통해 10여 개 국가에서 동시 방송된다.

이날 제작발표회는 유쿠를 통해 중국에도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이젠 '국민언니'로 불리고 싶어요"

가수 이정희 33년만에 6집 발표…'스윙' '슬픈 사랑' 등 수록

"제가 한 28년을 노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28년은 더 노래할 수 있다는 마음에 용기를 얻었어요. 죽을 때까지 노래하겠다는 각오죠."

히트곡 '그대여'로 유명한 1980년대 가수 이정희가 33년 만에 6집을 발표했다. 그는 1983년 5집을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떠났고 1988년 결혼과 함께 은퇴했다가 지난해 가요계로 복귀해 화제가 됐다.

그는 "그간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았다"며 "이제부터는 그 누구보다도 몇갑절로 열심히 노래할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이정희는 한양대 무용과 1학년이던 1979년 동양방송(TBC) '대학 가요 경연대회'에서 '그대 생각'으로 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그해 데뷔 앨범의 '그대 생각'과 '바야야'를 시작으로 1980년 2집의 '그대여'와 이문세가 리메이크해 더 유명해진 '나는 행복한 사람' 등이 잇달아 히트하며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깨끗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이 매력으로 1981년 KBS 방송음악대상 여자가수상을 받는 등 지금의 '국민 여동생'급 사랑을 받았다. KBS 1TV '콘서트 7080'의 MC인 배철수는 "옛날 아이유"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갑작스럽게 은퇴한 데 대해 "벼락스타가 됐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니 자아를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미련보다는 혼란스러웠고 미국에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떠올렸다.

"한 친한 PD가 '네가 가장 만족하는 모습은 가수 이정희일 것'이라고 했죠. 아이들도 다 컸고 그간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참았던 터라 결심하고 이민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컸으니까요."

가수가 된 건 우연이었다. KBS어린이합창단 출신으로 중고 시절에 무용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첫 미팅 때 만난 남자의 제안이 인생 진로를 바꿨다.

그는 "미팅에서 만난 남자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다음날 내게 찾아왔다"며 "노래를 잘 할 목소리라고 자신이 작곡해둔 '그대 생각'을 들려줬는데 노래가 좋았다. 먼저 한양대 가요제에 나가 1등을 했고 '대학 가요 경연대회'까지 나가게 됐다"고 웃었다.

이후 그는 전영록, 남궁옥분, 이용, 민해경, 윤시내, 이은하 등과 활동하며 상복도 많았고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했다.

"저와 같이 활동하던 가수들이 여전히 있고, 오랜만에 돌아오니 더욱 자극이 돼요. 우리 세대가 공감할 노래가 부족한데 또래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공감할 멋있는 노래를 많이 들려주고 싶어요."

기획사를 설립하고 직접 제작한 새 음반에는 각기 다른 장르의 신곡 3곡이 수록됐다. 타이틀곡 '스윙'은 성숙한 어른들의 진한 사랑을 노래했다. 다음 생의 사랑을 약속하는 중국풍의 트로트곡 '슬픈 사랑'은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보사노바 풍의 '파리에서'도 파리에서의 추억을 노래한 개성 넘치는 곡이다.

그는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성의없이 앨범을 제작하면 안 될 것 같았다"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화보를 찍고 직접 쓴 글을 담아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어느덧 50대인 그는 "예전의 청순한 이미지로 그대로 생각해주는 분들이 많더라"며 "하지만 시간이 훌쩍 흘렀으니 이젠 '국민 언니'로 불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욱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꼼지락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재)	00 닥터 365 05 특집다큐멘터리 문명(재)
12	00 KBS 뉴스 12	05 다큐멘터리 3일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토크 콘서트 화통(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감성애니 하루	00 1대100(재)	20 문화사색(재)	55 TV블로그 꼼지락
2	00 녹화중계 국회 대정부 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폴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영재 발굴단(재)
3	55 튼튼생활체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아빠 어릴 적엔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꼼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 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스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 킹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시사기획 창 55 감성애니 하루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우리동네 예체능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20 해외걸작다큐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15 MBC 100분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한아침
05:4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06:10 EBS 특별기획 통찰(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코코몽3
09:30 원더볼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미래에 살아남을 아이로 키우기〉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콩나물 볶음과 매콤 새우 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로보카 폴리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5:00 모피와 친구들
15:15 세계사 시간여행
15:30 피터레빗
15:40 꼬마기사 마이크(재)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16:00 코코몽3
16:30 코코코 다코(재)
16:45 딩동댕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원석 가구 제작〉
20:40 다큐 오늘 〈백주부도 반한 인도네시아 음식〉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뜨거운 심장, 후베이성〉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2부 더도 덜도 말고 이곳만 같아라〉
21:50 EBS 다큐프라임 〈강대국의 비밀 5부 1964년 미국, 미시시피 자유여름〉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쯔홍 씨 부부의 차향만리〉
23:35 시대공감
24:0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5일(음 6월 2일 戊子)

子 48년생 얼마만큼 치밀한 상황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해진다. 60년생 얼굴에 함박꽃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72년생 저변의 숨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84년생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1, 20

丑 49년생 형편에 맞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61년생 강도에 따라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 73년생 상당한 거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85년생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진 이와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78

寅 50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6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태를 냉철히 바라보자. 74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로다. 86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9, 80

卯 51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태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이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63년생 명약관화할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87년생 이루어진바 다름없다. 행운의 숫자 : 42, 81

辰 40년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52년생 진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64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제의가 들어올 수다. 76년생 표출될 수밖에 없다. 88년생 안개가 자욱한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28, 33

巳 41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53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65년생 선점하지 못한다면 불리하도다. 77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춰지니 길상이로다. 89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3, 71

午 42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54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78년생 포장을 잘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84

未 43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될 것이다. 55년생 상대의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67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79년생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56, 06

申 44년생 지난날에 비추어 볼 때 비슷하리라고 예상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56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돌 뿐이다. 68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80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59, 65

酉 45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리라. 57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69년생 체계를 그르치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81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90, 14

戌 46년생 본의 아니게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58년생 피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느니라. 70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82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62, 85

亥 47년생 대단한 성과 올릴 수 있다. 59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느니라. 71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83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55, 1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